

D-1 광주·전남 20개 선거구 판세 분석

민주 14곳·무소속 1곳 우세... 1곳 초경합

4·9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20개 지역구 판세 분석 결과, 민주당 우세 14곳, 무소속 우세 1곳, 경합 4곳, 초접전 1곳 등으로 나타났다.

◇광주=전체 8개 지역구 가운데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은 6곳으로 나타났다.

각 언론기관의 여론조사와 민주당의 자체 분석, 각 후보 진영의 판세 분석 등을 종합한 결과 동구 박주선 후보, 서구 갑 조영택 후보, 서구 을 김영진 후보, 북구 갑 강기정 후보, 북구 을 김재균 후보, 광산 을 이용섭 후보 등 6명의 민주당 후보가 경쟁 상대의 추격을 벗어나 안정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북구 갑은 '큰 정치'를 내세우며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의 막판 추격세가 얼마나 표를 연결되느냐가 관건이다.

무소속 우세 지역은 남구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결과 등을 감안하면 무소속의 강운태 후보의 우세가 확인하나 민주당 지방문 후보가 막판 추격전을 펼치고 있어 부동층의 표심 향배가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경합 지역은 광산구 갑이 꼽힌다. 언론기관 여론조사 결과, 김동철 민주당 후보의 경합 우세가 점쳐지기도 하지만 광산구청장 출신의 무소속 송병태 후보의 조직력도 만만치 않다. 특히 광산 갑은 도농 복합지역이라는 점에서 투표율이 당락을 가를 변수로 꼽히고 있다.

◇전남=전체 12개의 지역구 가운데 민주당 우세는 8곳, 3곳은 경합, 1곳은 초접전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 동부권과 중부권은 민주당 후보들이 확인한 우세를 보인 반면 서부권은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의 치열한 경합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동부권 5개 지역구 가운데 민주당 후보 우세 지역은 4곳이다. 여수 갑 김성근 후보, 여수 을 주승용 후보, 순천 서갑원 후보, 광양 우윤근 후보 등이다.

그러나 고흥·보성은 경합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단 민주당 박상천 후보가 여론조사 결과 등에서 경합 우세를 보이고 있지만 당의 위기 국면에서 대표가 지역구로 출마한데 대한 지역 여론 향배가 관건이다. 또 고흥 군수 출신의 무소속 진준근 후보의 조직력도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박 후보 우세속에서도 경합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서부권 4곳의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들이 초접전 또는 경합을 벌이고 있다.

우선 목포는 지난 5일 민주당 정영식 후보와 무소속 이상열 후보가 정 후보로의 단일화를 이루면서 여론조사 1위를 달렸던 무소속 박지원 후보와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단일화 효과가 얼마나 표심에 반영되느냐가 선거 결과를 가를 전망이다. 그러나 두 후보의 단일화가 곧 표



한표라도 더... 치열한 유세 경쟁

18대 총선을 이틀 앞둔 7일 광주시 남구 광주공원에서 각 후보들의 유세차량과 선거운동원들이 같은 시각에 한꺼번에 몰리는 등 치열한 유세경쟁이 벌어졌다.

광주 민주 6곳 안정권·1곳 열세·1곳 경합

전남 동·중부권 민주 우세, 서부권 경합 많아

의 합산으로 연결될 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해남·진도·완도는 선거 중반 터진 민주당 민화식 후보 측의 급물살포 의혹으로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당초 민 후보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됐지만 급물살이 썰매화되면서 무소속 김영록 후보가 격차를 줄이며 경합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영광·함평·장성 등 무소속 이상선 후보의 추격세가 만만치 않으나 민주당 이낙연 후보의 우세가 예상된다.

무안·신안 선거 당일 투표함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전남 최대의 초접전지역이다. 민주당 조직을 내세운 황호순 후보와 DJ 바람을 탄 김홍업 후보의 2강 구도에 무안 토박이론의 이윤석 후보가 막판까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중부권 3곳은 민주당 후보들이 안정권에 접어든 상황이다.

나주·화순의 최인기 후보와 담양·곡성·구례의 김효석 후보, 영암·장흥·강진의 유선호 후보가 경쟁 후보에 압도적인 차이로 앞서고 있다.

■광주·전남 판세 분석

광주	
지역구	판세 분석
동구	박주선(민) 우세
서구 갑	조영택(민) 우세
서구 을	김영진(민) 우세
남구	강운태(무) 우세
북구 갑	강기정(민) 우세
북구 을	김재균(민) 우세
광산구 갑	김동철(민) 송병태(무) 경합
광산구 을	이용섭(민) 우세

전남	
지역구	판세 분석
목포시	박지원(무) 경합우세
여수시 갑	김성근(민) 우세
여수시 을	주승용(민) 우세
순천시	서갑원(민) 우세
나주·화순	최인기(민) 우세
광양	우윤근(민) 우세
담양·곡성·구례	김효석(민) 우세
고흥·보성	박상천(민) 경합우세
장흥·영암·강진	유선호(민) 우세
해남·완도·진도	민화식(민) 김영록(무) 경합
무안·신안	황호순(민) 김홍업(무) 초접전
함평·영광·장성	이낙연(민) 우세

지역민 수도권 판세 더 관심

민주 견제 의식 가능할까 촉각

호남 고립 현실화되나 우려도

4·9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선거 판세보다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 판세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일부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 간의 치열한 격전이 펼쳐지고 있지만 모두 한 지붕 아래 모일 가능성이 높은 반면 수도권 선거 결과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당의 기본 원칙의 형성 여부를 물론 호남의 정치적 고립 등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7일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선거를 하루 앞두고 지역 민심은 지역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거보다는 민주당 후보와 한나라당 후보와의 치열한 접전이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선거 판세에 관심을 더 보이고 있다.

수도권 선거 결과에 따라 총선의 승패가 갈리는 것은 물론 호남을 정치적 기반으로 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견제할 대안 야당으로 자리를 잡는 계

기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다 자유선진당, 친박 연대, 영남 무소속 후보 등이 사실상 보수 색채가 강한 친 한나라당 성향이라는 점에서 지역민들은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4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입을 모으고 있다.

즉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색채의 보수 세력이 이번 총선에서 180~200석 가량의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민주당이 야당으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선전, 90~100석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총선 판세가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수도권 선거 판세가 한나라당 우세 방향으로 기울면서 지역민들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의 수도권 패배는 사실상 호남의 정치적 고립 현실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당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11개 지역구 가운데 우세 23곳, 경합 32곳, 열세 56곳으로 자체 분석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우세 65곳, 경합 26곳, 열세 20곳 등으로 분류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우리 좀 도와주세요”

4·9총선 선거운동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호남발 민주당 바람을 기대하는 통합민주당 수도권 후보자들의 광주·전남지역 후보들에 대한 도움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7일 광주·전남지역의 민주당 후보 선거 관계자들에 따르면 순화규 대표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등 수도권 경합지역에서 고

다.

서울 종로에서 순화규 대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민주당 당 관계자는 이날 “광주·전남지역 출신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율이 40%대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돼 걱정”이라며 “경쟁력을 가진 후보들이 수도권을 외면하고 호남에서 출마한 만큼 당을 위해 수도권 지원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민주당 수도권 후보들, 호남 후보에 도움 요청

경합지 호남 향우회 연결·지지 전화 부탁도

이 때문에 일부 호남 후보들은 수도권 후보자의 선거 사무실을 방문, 향우 명단을 건네주는 등

전하고 있는 상당수 민주당 후보들이 지원 유세, 호남 향우회 조직 연결, 수도권 향우회에 민주당 지지 부탁 전화 걸기 등을 요청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에서 한나라당 후보와 초경합지역이 늘고 있지만 민주당 주요 지지층인 호남출신 유권자들의 움직임이 미약한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호남권 중요 정치인들의 수도권 출마가 대부분 무산되면서 수도권의 호남 표심이 침묵하고 있는 것이

간접적 도움을 준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민주당 차원에서 이를 이벤트화 해서 '바람'으로 연결하기 힘들다는 점. 광주·전남지역 후보들은 지역 선거운동을 잠시 접어두고 수도권으로 가는 것에 대해 '자만' 비관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또 수도권에서도 '지역주의 역풍'에 대한 우려가 있어 내놓고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Kwangju Ilbo

광주일보 창사 56주년을 축하합니다.

본지는 창간 이래 56년째 정직하고 공정한 보도를 통해 시민의 권익을 수호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의료계 선봉자

에덴병원

전남지역 유일의 종합병원